

산악회에 입회를 한 것이 2007년 여름이다.¹⁾

문 민 규²⁾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산악회에 입회를 한 것이 2007년 여름이다. 2006년에 군대를 전역하고 2007년 1학기에 복학을 하여 한 한기를 마무리 하고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다. 첫 산행은 북한산 인수봉 산행이었다. 그저 등짐 매고 경치 구경하는 산행이려니 생각하고 따라나선 산행이었다. 그런데 아뿔사! 가벼운 마음의 나를 아득히 솟아있는 인수봉 암벽 밑으로 데려가서는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시키고 로프로 올라매고선 따라 오르란다. 이게 무슨 낭패란 말인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섰다. 정상에 서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멀리 한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나와 산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하였다.

그렇게 몇 해 동안은 정신없이 산에 다녔다.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 선운산 등 전국 어디고 관계없이 매 주 주말은 물론 이거니와 주중에도 시간이 날 때면 늘 산으로 향했다. 그러는 중에 학업에는 게으름을 피운 것이 사실이다. 내 전공은 산림환경학이다. 이 두 가지 사실, 산악회 활동을 한다는 것과 전공이 산림환경학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은 반응이다. ‘아, 넌 산을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산을 좋아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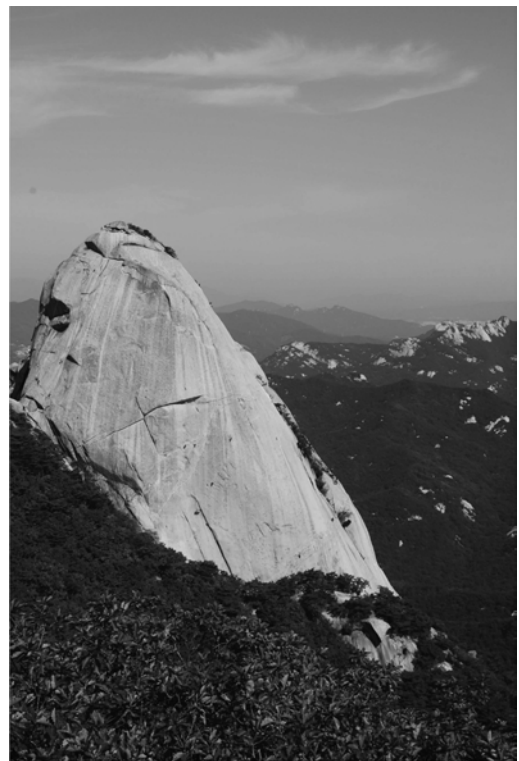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산 인수봉(804 m). 북한산(836 m)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서울의 지봉이다. 삼각산 이라고도 불리며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 세 개의 봉우리가 삼각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인수봉은 표고차 180여 미터의 깨끗한 화강암 봉우리로 국내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암벽 등반가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은 현재 정상으로 이어지는 80여개의 루트가 정비되어 있다.

1)I'm Top Climber

2)MOON, Min Kyu, Dept. of Forest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moon.minkyu@gmail.com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한번 이상 등산을 하는 인구를 등산 인구로 산정했을 때 우리 나라의 현재 등산 인구가 천오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불과 작년만 하여도 천만이라던 숫자가 어느새 천오백만 이란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대중들도 크게 실감을 할 것이다. 얼마 전에는 한 여성 등반가가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에 8천 미터가 넘는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른 일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크게 보도되며 일반 대중들에게 등산에 대한 인식을 크게 재고하였고, 요즘은 어디를 가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광고가 즐비하며, 지난 몇 해 동안 의료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웃도어 업계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해에 한번도 산에 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옷장에 아웃도어 브랜드의 옷 한 벌 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느새 등산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주말이면 이러한 아웃도어 브랜드 차림의 사람들이 인근의 산과 주변의 대중교통을 가득 매우고 있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등산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들은 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스포츠 레저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등산은 다른 활동과 비교하여 입문이 쉽고 그 어떠한 활동보다 자연 친화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 나라는 등산이라는 말보다 입산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였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산을 어떠한 도전의 대상, 정복의 대상이 아닌 그 안으로 들어가 산과 인간의 소통과 교제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표현

으로, 과거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산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사실 등산이라는 표현은 서구의 등반(Climbing 또는 Mountaineering)이라는 개념과 더욱 가까운 표현으로 과거 18~19세기의 유럽 알프스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알피니즘(Alpinism)과 맞닿아 있다. 알피니즘은 곧 도전과 정복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이며 그 대상은 산, 그것도 유럽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알프스가 대상이었다.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혀 우뚝 솟은 알프스의 고봉들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던 등반가들의 정신이 바로 알피니즘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산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 늘 푸름의 상징으로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 같은 사람을 두고 마치 ‘산’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이렇듯 우리의 인식 속에 산은 도전과 정복의 대상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층 더 깊은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알프스처럼 만년설도 빙하도 없다. 우리에게 인식 속에 산은 언제나 생명이 넘쳐난다. 그들 유럽 사람들에게 산이 공포의 대상, 정상에는 악마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산은 언제나 풍요롭고 넉넉한 곳이다. 더욱이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산, 산림도 전통적으로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써만 그 기능이 한정되었지만, 근래에 들어 산림의 여타 공익적인 기능들, 즉 수원함양 기능, 생물종 다양성 보존 기능, 대기온실 가스 고정 기능, 자연 재해 방재 기능, 휴양·정서적 기능 등이 부각되며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재고되고 있다. 이 중 산림의 대기온실 가스 고정 기능은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기 중의 온실 가스를 고정하는 기능으로,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주로 흡수한다. 또 산림은 ‘녹색댐’이라고 불릴 만큼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 간에 강수량 차이가 큰 지역에서 연중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원 공급을 위해 산림을 이용하는 방안이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 이렇듯 산림은 단순히 필요한 목재를 구하고 푸르른 산림이 주는 휴양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지난 2010년 2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한 악사이 산군에 산을 등반하러 간 일이있었다. 그곳에 현지어로 ‘스보보드나야 까레야’, 우리말로 이야기 하면 ‘자유한국’이라는 뜻이다. 나는 인류학을 전공하는 산악부 선배와 함께 들어서 이 흥미로운 이름의 벽을 오르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우리 둘의 목표는 단순했다. 그곳에 오르는 것이었다. 정상에 서는 것 말이다. 그러나 우연히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3400 m 인근에 위치한 라첵 산장을 지키고 있는 산장지기로 흰칠한 키에 금발을 가진 청년으로 이름은 페트릭이었다. 그 청년이 오기 전에 지키고 있던 산장지기는 전형적인 몽골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키르기스스탄엔 전형적인 백인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대했지만 둘 간에 분명한 차이는 먼저 있던 친구는 현지어만 사용하여 우리와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페트릭은 영어가 능숙해 이 전에 친구에 비해 선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조금 지나 알게 된 사실이 페트릭의 고향은 호주라고 했다. 아니 왜 호주 사람이 이곳에서 산장지기를 할까? 우리가 갔을 당시는 한 겨울 이어서 한 낮에도 영하 20도를 웃돌았다. 그렇게 추운 곳에, 받는 보수라고는 거의 무료 봉사 수준이었다.



그림 2. ‘스보보드나야 카레야’(4740 m) 북벽을 향해 전진하는 필자. 이곳은 1953년 초등되었으며 당시 한국 전쟁 중이던 한반도를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뜻으로 ‘자유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북벽에는 현재 16개의 고난도 루트가 개척되어 있다.



그림 3. 동이 틀 무렵 산장 인근에 내려온 악사이 산군의 산양들.

우리는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와 선배는 그곳에 봉우리들을 오르자고 왔지만, 페트릭은 그저 그곳에 있었다. 본인의 이야기가 자신은 그곳이 좋다고 한다. 반면 나와 선배는 하루 빨리 정상에 선 뒤 따듯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뭘지 모르겠지만 신성한 충격이었다. 우리는 등반가였지만 그는 입산가였다. 그는 본국과 그곳을 오가면 지낸다고 했다. 그곳에서 산장지기를 한지는 3년째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같은 등반가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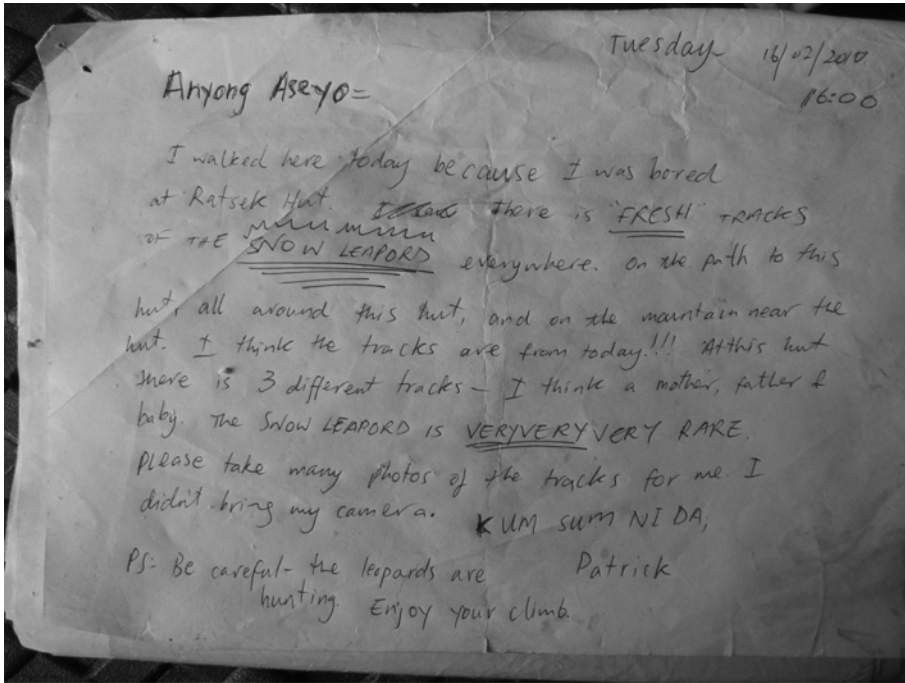


그림 4. 페트릭이 우리에게 남긴 메모. 호주에서 온 페트릭은 악사이 산군 리책 산장에서 산장지기를 하며 산악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정리한다. 그는 언젠가 한국을 다녀온 간 적이 있다고 한다. 메모의 처음 'Anyong Aseyo='와 마지막의 'Kum Sum Ni Da'는 한국어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의 마찰도 많았다고 한다. 그의 입장에서 우리의 행위는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곳저곳에 텐트를 치고 화석 연료를 피우며 음식을 하고 우리의 흔적은 남기고 돌아간다. 처음엔 그런 등반가들에게 일일이 잔소리를 하며 뒷정리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은 없이 우리들의 뒷정리에만 더 신경을 쓰고 있단다. 페트릭의 말이 그곳을 찾는 등반가들은 마치 그곳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특히나 어느 봉우리의 정상으로 오르고 오기라고 하면 그 기세등등함과 오만함에 행동이 더 불상 사나워진다는 것이다. 그에 말에 따르면 우리는 잠시

이곳을 다녀가는 것일 뿐 우리의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다녀가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흔적은 가능한 최소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이번 주말이면 또다시 인근의 산들은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어쩌면 너무 많은 비로 불안정한 사면을 염려해 조금은 줄어들지는 모르겠다. 우리 각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산을 찾을까?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공익을 베풀어 주는 산에 감사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정상 등정을 위해? 또 아니면 입산을 위해. 언제부턴가 나는 입산자이고 싶다.